



'통일기원' 휠체어 2만2000km 유럽 대륙 종단하는 중증 장애인 최창현씨

"분단의 아픔보다 더 힘든 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아-헝가리 국경을 통과한 최씨는 이날 바람 한 점 없는 섭씨 30도의 피약발이 내리치는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에 가면 숨을 몰아쉬며 모습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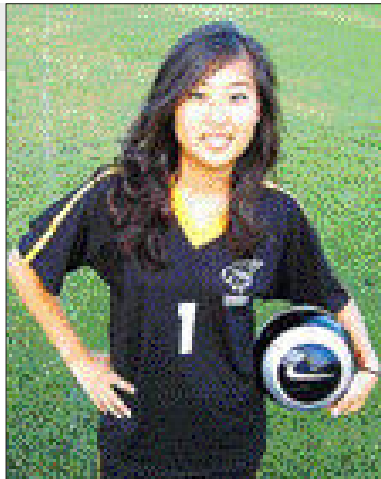
협화와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는 최씨는 지금까지 4개국을 거치는 동안 각종 시민들로부터 받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가 A4 용지 40-50쪽에 달한다.

美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입학 김소영씨

"여성도 축구팀 주장 맡겠다"

'웨스트포인트 여자 축구 대표팀 주장자리는 내 것' 올해 캘리포니아주 한인 여학생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는 김소영(18)씨는 여자축구팀 주장 자리를 맡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선수처럼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를 도와야 하고 경기의 흐름을 파악해 팀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위치다. 김씨의 축구 입문은 축구를 좋아했던 예비대 재학 중인 오빠 성훈(20)씨를 따라다니던 것이 계기가 됐다.



것이 우선 목표고 나중에는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두리 선수의 팬인 그는 "차두리 선수가 독일 월드컵에 뛰지 못해 안타깝지만 박지성 선수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넉넉함을 부는 '색소폰 교수님'

전대 신원형교수 지하철 연주

현직 법대 교수가 색소폰 연주회를 가져 감명을 받았다. 전대 법대 신원형(55)교수는 지난 16일 광주시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상무실에서 마련한 '평화통일 기원 무지개 문화마당'에 초청·출연해 '아침이슬' '눈물짓는 두만강' 등을 색소폰으로 연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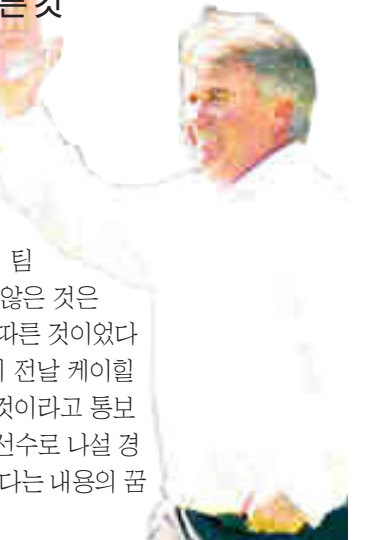


도 넉넉해졌다 자라났다. 신 교수는 "마음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짬짬 시간을 낸 것인데, 사람들 앞에 서고 보니 속스럽고 떨린다"고 겸손해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히딩크 감독 신통력 통했나? 꿈해몽 적중

일본전 전술변화 꿈에 따른 것

호주 팀이 일본에 3대 1 역전승을 거둔 뒤 거스 히딩크 감독의 신통력(?)이 호주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호주 신문들은 18일 히딩크 감독이 일본전에서 내리 2골을 뽑아낸 팀 케이힐을 스타팅 멤버로 기용하지 않은 것은 전술적 변화라기보다 자신의 꿈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창가이, 이윅용 마사지로 한국서 인기짱"

토고 몽디알토고紙 보도

토고와 한국의 경기 도중 쥐가 나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이윅용(31·트라브존스포르)의 다리를 성심성껏 주물러 준 토고 중앙수비수 마사메소 창가이(28·베네벤토)의 사진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퍼지면서 칭찬 여론이 모아지자 토고에서도 호풍한 반응을 보였다. 토고의 축구전문 온라인 매체 '몽디알토고'는 17일(이하 한국시간) 이와 같이 전하고 "승부를 떠나 토고가 보여준 플레이와 예의바름, 같은 축구선수로서의 동료애에 대해 토고선수의 열정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키만 크면 다야? 토고 골키퍼 '최악 선수'

英 선데이 미러紙 보도

영국 대중주간지 '선데이 미러'가 18일 지난 한 주 치러진 2006 독일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결과를 정리하면서 토고 골키퍼 코시 아가사를 '최악의 선수'로 꼽았다. 신문 인터넷판은 아가사를 놓고 "키가 190cm나 되는 이 골키퍼는 한국 선수들의 숨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숨을 놓쳤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스위스 베라미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코스보 난민 인생 스토리 화제

코스보 난민의 아들로 태어난 스위스 축구대표팀의 주목받는 '영건'으로 성장한 미드필더 발론 베라미(21·라치오)의 인생 스토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부상으로 19일(한국시간) 토고와 G조 조별리그 2차전에 결장하게 된 베라미는 18일 일본 스위스 축구대표팀의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바르 베르트리에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나는 이민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측

- ▲김건민(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장 정수사업소장)씨 차남 도전극 박점동씨 장녀 나영양=25일(일) 오후 1시 명상예식장 1층 특실.

알림

-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틀기가족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 오후 7시30분 응봉동 큰바다해물탕. 011-9609-6780 ▲강진계산초교 제 14회 동창회 (회장 김상선) 모임 =24일(토) 오후 7시 영암식당. 016-604-8492 ▲양우회 ▲재광 보상을 향우회(회장 박철현) 정기총회=19일(월) 오후 7시 미연회타운 별관. 227-4743 ▲중친회 ▲전주리새 대중음악원 광주전남 청년이화회(회장 리진우) 월례회=20일(화) 오후 7시 광주전남 도지인회의실. 225-5631 ▲모집 ▲극단 청춘 회원 및 단원 모집 =

-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창작극 활성화'를 위한 특별 기획 공연 등 차기 작품 참여자 모집. 20세 이상으로 배우·기획·연출 분야. 7월 9일까지. 문의 430-5257.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인명구조원 일반·강사과정 교육생 모집=만 18세 이상 기본연봉 200m 가능. 접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광주·전남 홈페이지(Htt://gwangju.redcross.or.kr). 문의 521-054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상담,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광주시 남구 방림동 자율방범대원 모집=방림동 거주자(25~55

- 세)로 야간에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활동 할 사람. 016-362-2180, 652-8389 ▲광주아버지합창단원모집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223-0808, 016-601-3190 ▲충견문화재단 지원 보조회원 모집 =진도전 헬스클럽 및 전화회 수업 동호인 모집 011-642-2866 ▲장애인 일일 나들이 봉사회원, 이·미용 회원 모집=장애인 이용회원 2명, 자원봉사 회원 2명. 0505-206-0106 ▲(사)미래대동 대명문화원 댄스 동아리 회원모집 =중·고 대학생 010-9871-3648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 교사, 수강생 모집 =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223-8529, 016-223-9541 ▲전남장애인재활협회 자원봉사자 모집 =장애인 가정 방문 컴퓨터 AS, 교통비 지급 524-1860 ▲꿈을 품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 모집 =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

- 반, 영어 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512-5788, 262-1542 ▲담당장에서 사랑봉사(회장 서원호) 봉사회원 모집 =중증장애인에겐 봉사할 차량·후원·탈봇 봉사회원 각 50명씩, 문의 (061)381-8909, 011-9600-8909, 011-9600-8102 ▲장애인 차량봉사 =장애인 차량 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담양·나주·화순) 등 2~3일전 예약 시 가능. 0505-206-0106 ▲Philo통기타 동호회 =40세 이상 남녀, 매월 1회 정기발표회, 초보자도 가능 019-660-3388 ▲푸른학당 =오전반(검정고시

- 반·초등과정), 오후반(초등반·기초영어반), 야간반(초등반·중등반·고등반) 광주교육에 맞춘 2층 529-1188 ▲김용복씨 별세 권중(전 광주일보 논설위원·광주대 겸임교수)·성중·우진·향진씨 부친상=발인 20일(화) 오전 9시 한국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380-3046 ▲서진숙씨 별세 남평민·광수·윤자씨 모친상 최상필씨 빙모상=발인 20일(화) 금호장례식장 402호. 227-4314

경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죽님길모퉁이별반양 (062)521-1100

넓고 평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뒤(구 호진) 대표: (062)515-4488